

정읍 '기적의 놀이터' 조성 속도

시,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내장산문화광장내 2025년 준공 연말까지 기본설계 등 확정

정읍시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읍시는 최근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아동관련 전문가(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 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은 어린이가 원하는 놀이터, 주도적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참여형 놀이터 조성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장산문화광장(쌍암동 536) 일원에 약 1만9000㎡의 규모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순천 등 5개 시·군에 설치된 놀이터 선진지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올해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린이, 아동 관련 전문가, 놀이터 전문가와 토론회 등을 거쳐 놀이터 선호도조사를 마쳤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1일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전문가들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와 정읍시의 특색을 반영한 놀이시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부모들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쉬고, 뛰어놀 수 있는 정읍의 랜드마크 놀이터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보완해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올해 말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정읍형 기적의 놀이터가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반영한 전국 최대의 놀이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고창 신규 고인돌 등 유구 45기 추가 발견

2차 시굴조사 중간 결과 공개...석곽 2기·구상유구 10기 등

고창의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의 2차 시굴조사 과정 중 신규 고인돌 등 다수의 유구가 추가 확인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고인돌이 집중 분포된 범위에 대해 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면적 12만6000㎡ 중 5코스 일원의 6만5000㎡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기존 고인돌 171기와 별개로 신규 고인돌 5기, 석곽 2기, 석실 1기, 석렬 10기, 구상유구 10기, 수혈 13기, 소성유구 2기, 토광묘 1기, 배수로 1기 등 총 45기의 유구가 추가 확인됐다고 군은 전했다.

특히 신규 발견된 고인돌 3기가 배열상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새로운 고인돌열(列)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유일의 선사시대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 세계 고인돌



고창 고인돌 유적 2차 시굴조사 중에 추가 발견된 신규 고인돌.

연구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평생학습인 한마당 축제

16일 사랑의광장 '플레이 그라운드' ...도전 골든벨·자체 공연 등

남원시가 평생학습인 성과발표회를 축제행사 형식으로 개최한다.

남원시는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남원평생학습 성과발표회를 오는 16일 남원사랑의광장에서 '2023 평생학습인의 축제-플레이 그라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성인문해 학습자들의 도전 골든벨, 평생학습 참가자들이 꾸미는 공원, 환경보호를 위한 업사이클링 체험과 평생학습 동아리의 체험 및 전시회 등으로 구성됐다.

당일 현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이벤

트와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특히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평생학습에서 취업까지 연계지원과 구인기업의 고용난 해소를 위해 남원고용플러스센터를 비롯해 고용 관계기관 및 구인기업 등과 함께 미니취업박람회도 운영한다.

남원시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이번 성과발표회는 평생학습인과 시민 모두가 '배움'의 즐거움이 일상이 되는 상상 속에 기획한 만큼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부족함 없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소작담 양도투쟁 의미 되새기다

1985년 대지주에 맞선 농민들 투쟁...기념사업회, 36주년 행사

고창 삼양사 소작담 양도 기념사업회가 지난 11일 심원면 공산마을 입구에서 '고창 소작담 양도 투쟁 제3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군 기관사회단체장 및 심원면, 해리면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재만 양도위원장의 기념사와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 이경신 고창군의회 부의장의 축사, 김상호 전 광산구청장의 고창 소작담 양도투쟁 이야기,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고창 삼양사 소작담 양도투쟁은 1949년 토지개혁에서 제외된 삼양사 소유의 간척지를 되찾기 위해 1985년 250여명의 농민과 학생들이 연대해 투쟁한 사건이다. 12차례의 협상을 통해 결국 평당

1881원(당시 37가)에 유상 양도하기로 하고 2년간의 투쟁이 끝이 났다.

고창군과 기념사업회, 기념탑설립추진위원회는 이날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기리고 농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헌신과 노력을 재조명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 개최해 왔다. 올해는 공산마을 입구에 기념탑 건립을 추진 중이다.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는 기념식에서 "고창 소작담 양도투쟁은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혁명의 역사에 많은 의미를 남겼다"며 "토지 소유권을 두고 대지주에 맞선 싸움이 양측의 합의를 통해 농민들에게 양도된 사례는 유일하게 고창뿐이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치매환자 실종 방지 감지기' 개발 도전

배터리 용량 확대·위치 정보 다양화 연구 개발·특허 공동출원 계약

남원시가 치매환자들의 실종 방지를 위해 단점을 보완한 '배회감지기' 개발과 이를 통한 특허출원에 도전한다.

남원시는 '실종 ZERO·실종없는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현 배회감지기 제품과 차별화된 '스마트 배회감지기'를 개발할 예정으로 연구개발기관인 (주)첫눈과 '배회감지기 연구개발·특허 등 공동출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에 따라 시와 (주)첫눈은 앞으로 2년간 인공지능(AI) 융합 배회감지기 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의 권리지분, 출원절차, 특허출원 비용 부담, 실시료 납부(판매이익금), 개발발명 등에 관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시와 (주)첫눈이 개발 중인 '스마트 배회감지기'는 1회 배터리 충전으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시 충전이란 불편 때문에 착용률이 떨어졌던 기존 배회감지기의 최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종이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확인 방식을 3가지 이상으로 다양화해 산간지역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위치 확인이 가능한 것도 '스마트 배회감지기'만의 특



최경식(오른쪽) 시장과 (주)첫눈 박남주 대표가 '배회감지기 연구개발·특허 등 공동출원' 계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화된 장점으로 조만간 시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계약체결로 남원시와 (주)첫눈이 연구개발 중인 배회감지기의 확장성 확보는 물론 차별화된 기술력을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 기조에 맞는 디지털 전략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AI 융합 배회감지기 개발 등 최적화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는 등 치매환자 실종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